

## 북한 조문단 방한의 의미 및 향후 과제

### 입 장 태

(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 조문단의 방한 기간 동안의 발언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사를 자임한 이들 일행은 예정된 귀환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기다린 끝에 청와대를 예방하여 남북의 협력 증진을 바란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최근 한국과 미국에 대한 화해 제스처와 대화 재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성사 및 여기자 석방,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의 방북과 억류된 유씨의 석방 및 남한당국과의 대화 재개와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경협사업의 정상화 의지를 시사하는 5개항에 대한 합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고위급 조문단 파견 및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에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초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남한당국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과 관계 악화 조치, 장거리 로켓(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발사와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발사 등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오던 모습과 대비된다. 북한이 이처럼 급격하게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미국에 대해 행동 양태를 변화시킨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미국과 한국에 대한 다소 공세적인 대화 제의의 배경은 최소한 3가지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자신감의 회복을 들 수 있다. 로켓발사, 핵실험 및 중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의 성공을 통하여 대외관계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핵보유국가로서의 위상을 굳히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협상패턴을 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과거 협상패턴에 비추어 위기 국면을 고조시킨 이후에는 협상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도부의 조급함이 내포되어 있다. 후계체제 구축작업의 시간표 및 악화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과제를 달성해야 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행태 변화와 관련해서는 3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북한의 대외정책이 전술적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문제의 돌파구가 필요한 북한당국이 남한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 문제의 해소와 함께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정부의 원칙을 고수하는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어 북한이 태도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내 일부에서는 북한의 태도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기 는 하지만 검증이 필요한 만큼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다 확실한 태도 변화, 특히 핵포기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북관계의 개선 및 핵문제 해결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북한이 남한당국에 보여준 변화의 모습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북한은 여전히 남한과의 관계를 대미관계의 보조적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북한이 대남관계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에 따라 대화를 제의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의 배경과 이유는 복합적일 것으로 보이며, 현 단계에서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당국간의 향후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특정한 판단에 의지하기 보다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 증진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관계의 발전이라는 큰 틀의 원칙과 방향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써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조문단과의 면담에서 이야기한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라는 인식으로 남북관계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그리고 미·북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노력, 남북간 민간차원의 경제관계를 국제화시키기 위한 노력 등이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다양화를 위한 다양한 작업과 병행·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